

광주시 민간차원 대북교류 물꼬 트나

수해지역 지원 위해 광주시의원 전원 방북 추진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26명 전 의원이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방북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의원들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광주지역 통일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6일 “북한 수해지역에 쌀과 의약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시의원 전원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방북 신청에 앞서 8일 통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원들의 방북 일정은 다음달 5~7일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며, 수해가 가장 심한 지역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의약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인 대북 쌀 지원 사업과 광주시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도 적극적인 대북 지원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대북지원을 위한 통일부와 민간단체 교류 사례 등을 확인하고, 향후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실제로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13억4800만원이 조성됐지만, 지금까지 집행액은 1억28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08년 이후 집행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난 2007년 1월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2007년 이사회만 3차례 개최했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북교류 활동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상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제1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쌀과 의약품 지원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립형 사립고 모집요강 위헌 논란

광주시의회 최희곤 교육위원장은 6일 “현행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응시 제한은 위헌”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헌법소원과 함께 신입생 모집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상위성적 30% 이내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과정권을 침해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

임하는 것은 입법체계가 적절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으로 학교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또 행정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이상갑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최권일기자 cki@



강운태 광주광역시장님 방문 구정보
2010. 9. 6 (월)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청 방문한 강운태 시장 6일 오후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선5기 들어 처음으로 동구청을 방문, 유대명 동구청장 및 실·국장들과 함께 구정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개헌 필요하지만 문제는 타이밍 지방자치권 강화가 우선돼야”

강운태 광주시장은 6일 열린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 지역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은 오는 9월까지 구조조정 대상 광주시 산하기관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은 이달 말까지 광주시 시민프로축구단 2차 공모에 나서 축구단 창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산하기관 조직·기능재편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민선 5기 출범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축구단 이 필요한 것인지 지역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시민주 공모에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강매나 할당이나 하는 소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정책실에서는 지금부터 2012년 국비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사

업 및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영남은 3~4건의 예비타당성 신청이 들어오는데 호남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며 “좋은 제안이며 다음달 중순쯤 일부에 대해서만 회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R&D특구 면적을 5년 내 개발수요가 있는 1696만㎡를 지정된 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LH공사의 방침에 대해 강 시장은 “물러서지 말고, 전체 경계를 일단 잡은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방재국은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와 관련 예비비로 12개 상가에 대해 7억2200만원의 보상비를 이번 주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과 관련 불가튼을 제기하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다 시 한 번 역설했다. 그는 “개헌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타이밍으로, 민생 안정이나 지역발전이라는 현안이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광양만권 경제구역 지지부진 화양지구 사업자 취소 검토”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과 관련, 남해안권 KTX 구축 계획이 제외된 점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지부진한 개발계획이 6일 열린 전남도 간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지난 1일 내놓은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서 남해안권이 빠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거점을 KTX망으로 구축,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계획에 남해안권이 제외됐는데도 쟁기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초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회의에서는 논의됐다고 하는데 안권이 빠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거점을 KTX망으로 구축,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계획에 남해안권이 제외됐는데도 쟁기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초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회의에서는 논의됐다고 하는데 안권이 빠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거점을 KTX망으로 구축,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계획에 남해안권이 제외됐는데도 쟁기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또 “중앙부처에서 추진되

는 사업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누가 담당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위서 써라”고 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지부진한 추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 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움직임에 대해 “광양만권의 경우 땅이 없는 실정인데도, 면적 축소 얘기가 거론되는 것은 화양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시행자측에 세부 개발계획을 다시 받고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지정은 됐지만 개발을 하지 않아 (지역이)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추진 의지가 없으면 아예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아울러 ‘태평 말로’와 관련, 민영·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최재성 순수 집단지도체제 반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일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으로 2012년 민주당 집권의 거대한 장애물이 발생했다”며 “이는 낡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세대교체를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들이 나눠먹기식 지도부 구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빅3’(손학규·정세균·정동영) 중 일부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통합된 민주당의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2012년 온전한 집권을 성취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내 계파 해체와 집권 2012 기획단의 즉각적인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정치신인 양성을 위한 시스템 강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지방정부 독립성 강화 및 지방의원 보좌관제 신설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곽정숙 아동 성보호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성매매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음란전화방을 신고해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음란물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기자회견을 갖고 “28년을 서구에 살았고 23년 동안 민주당 의결을 걸어 왔다”며 “지금 서구와 서구민의 시대적 요청은 깨끗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목마름이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환경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며 “풍암-운천저수지와 전정제를 잇는 레저-볼거리-음식문화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호권 평생교육진흥 조례 발의

조호권 광주시의원(민주·북구 5)은 6일 “다문화·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고, 광주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재청 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

고재청 조선태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6일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며 10·27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물,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전 → 시공 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062) 서구 352-7788 북구 512-7998 남구 676-7719

전남(061) 목포(삼화) 274-5987 순천 744-8605 목포(건영) 243-7463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수완지구 마지막 프리미엄을 잡으세요!

수완대방노블랜드

15-1, 8-2, 8-4 BL (구 35, 44, 49, 50, 56평)

단지주변중심 상업지구(은행, 증권, 병원, 학원가), 롯데마트, 복합쇼핑몰

① 특별혜택제공 ② 로얄층가능(일부평형)

광주 전지역 분양아파트 상담가능

내집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대방 노블랜드 협력 공인중개사

베르디움 공인중개사 959-5885

노블랜드 공인중개사 962-4848

엔젤부동산 컨설팅 959-1333

대방공인중개사 959-4009